

2024. 3. 20. (수)

보도 시점

11:00

배포

2024. 3. 20. (수)

09:00

3. 21. (목) 조간

## 봄철엔 사슴 사료 급여량을 늘려 주세요

- 농촌진흥청, 봄철 사슴 세심한 사양관리 당부
- 수사슴, 새로 뿔이 자라는 시기 단백질 수준 고려한 사료 급여
- 암사슴, 임신 말기 되면 사료 급여량 약 10~20% 늘려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사슴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고, 암사슴이 임신 말기에 접어드는 봄철, 사슴 사양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슴은 계절에 따라 체중 변화가 크다. 특히 봄은 사료 먹는 양이 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다. 또한 굳었던 뿔이 떨어지는 낙각(落角) 이후 새로운 뿔이 자라는데 이때부터 2~3개월 정도 자란 뿔이 녹용으로 쓰인다. 이 시기에 단백질 수준이 17% 이상인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를 급여하면 녹용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낙각 시기는 품종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다 자란 수사슴(성록)의 경우 엘크와 레드디어는 2~3월, 꽃사슴은 4월 말부터 낙각이 시작된다. 녹용을 수확하는 절각(切角)\* 시기는 낙각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개체별로 낙각 시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낙각 이후 수사슴(4월, 엘크)>

\*사슴의 뿔(녹용)을 자르는 일, 절각 시기(낙각일 기준): 꽃사슴(60~70일), 레드디어(65~75일), 엘크(80~90일)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슴은 낙각 시기가 이르며, 어린 사슴은 늦은 편이다. 또한 영양 상태가 양호한 개체일수록 낙각이 빠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일 경우 낙각이 늦어질 수 있다. 낙각이 늦은 성록은 영양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계절번식 하는 사슴은 가을에 임신해 초여름에 분만하는데 임신 기간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꽃사슴은 평균 225일, 레드디어는 231일, 엘크가 251일 정도다.

봄은 암사슴이 임신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태아의 발육이 왕성해지는 때다. 임신 중기인 3월까지의 평상시와 같이 사료를 급여하되 임신 말기인 4~5월에는 약 10~20% 늘려줘야 한다.

이 시기 영양이 부족하면 분만할 때 허약한 개체가 태어나거나, 생시체중(태어났을 때 몸무게)이 적게 나갈 수 있다. 또한, 분만 후 어미의 모유 생성(비유) 능력이 떨어져 새끼 사슴의 초기 발육이 더딜 수 있으므로 임신 말기에는 보다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슴은 봄이 되면 겨울 동안 길게 자란 발굽을 깎아줘야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손상된 철망을 보수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전반적인 축사 점검을 한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사슴 사육 마릿수는 약 2만 500마리며, 사슴 생산액은 238억 원, 녹용은 401억 원에 이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녹용 생산과 번식은 사슴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봄철에는 수사슴과 암사슴 사양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사슴 절각 시기, 국내 사육 현황 및 산업생산액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한만희 (055-960-3510)
		담당자	연구사	김동교 (055-960-3544)

**붙임****사슴 절각 시기, 국내 사육 현황 및 사슴 생산액****□ 사슴 낙각·절각 시기**

- 사슴의 절각 시기는 품종별, 나이,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슴은 낙각이 빨리 이루어지며, 어린 사슴은 낙각이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사슴 품종	낙각 시기	절각 시기 (낙각 후 기준)
꽃사슴	4~5월	6~7월 (60~70일)
레드디어	2~3월	5~6월 (65~75일)
엘크	3~4월	6~7월 (80~90일)

**□ 국내 사슴 사육 마릿수(기타 가축 통계, 농식품부)**

- 2022년 기준 국내 사슴 사육 마릿수는 20,500마리로 보고되고 있다.

연도	합계 (농가 수)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2020	23,723 마리 (1,312호)	12,117 마리	9,520 마리	935 마리
2021	23,063 마리 (1,205호)	12,141 마리	9,065 마리	821 마리
2022	20,500 마리 (1,007호)	11,512 마리	7,198 마리	829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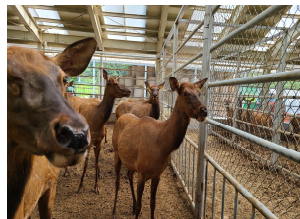
**□ 국내 사슴 산업생산액(통계청 농림 생산지수, 농식품부 생산지수)**

- 2022년 기준 국내 축산업 산업생산액 내에서 사슴은 238억 원, 녹용 401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년도	산업생산액 (단위 : 십억 원)		
	축산업	사슴	녹용
2020	20,347.2	23.2	38.2
2021	24,574.8	15.9	39.0
2022	25,224.2	23.8	40.1

**□ 사슴 사진**

수사슴 사진(4월경)



암사슴 사진